

# numbers 제 116호



## 주요 내용

2021.10.22

1. 이번 주 주제 1. **[한국 교회 소형 교회 위기]**  
10월 3일(일요일) 기준, 전국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미실시 16%!
2. 이번 주 주제 2. **[202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50대 연령층, 10명 중 1명 꼴로 이혼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기독교 통계

# 10월 3일(일요일) 기준, 전국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미실시 16%!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사회구조적 아픔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양극화'이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19가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가 경제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이 깊은 사람이 더 깊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데이터로 감지되고 있다.

또 교회 규모의 양극화 현상도 일어난다, 최근 10년 사이에 소형 교회가 부쩍 많아졌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10명, 20명 규모의 초소형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종교시설 중 16%가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이를 개신교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16%의 교회가 현재 잠시 중단하거나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것으로 봐야 해서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6호에서는 한국 교회 소형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소개한다. 이어서 최근 발표된 '2020년 인구센서스 주요 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한국 교회 소형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일어설 수 있길 기도한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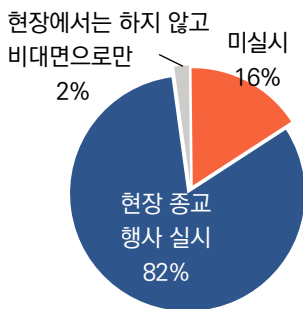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3일(일요일) 기준, 전국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미실시 16%!

-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월 3일(일요일) 전국의 종교 시설 16,403개소를 대상으로 7,411명을 투입해 종교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 ‘현장 종교 행사(예배, 미사, 법회 등)를 드린 곳’ 82%, ‘현장에서는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만 실시’ 2%, ‘미실시’ 16%로 조사됐다.
- 이처럼 전체 종교 시설 기준으로 16%가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별 편차가 있겠지만 이를 개신교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교총 소속 교회가 57,000여 개인 것을 고려할 때 무려 9,000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교회 운영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0월 3일(일요일)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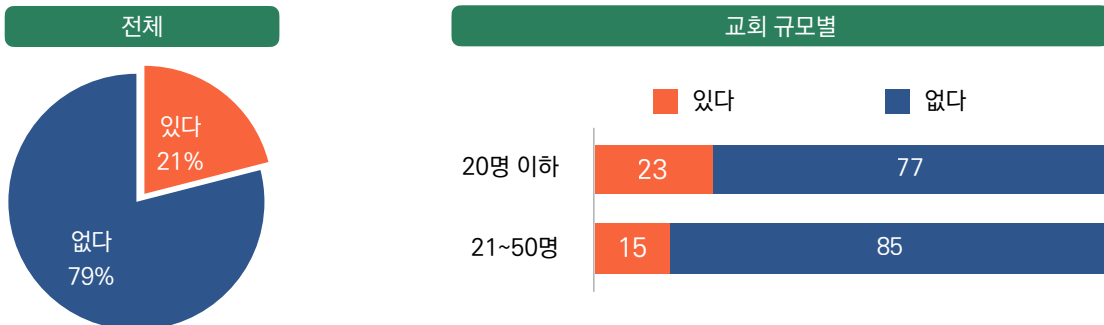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 이력 확인 가능’, 2021.10.05. (국민일보, 2021.10.21, ‘대면예배 일부 허용에도 잠자는 교회 깨우는 노력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4470>)

### ● 소형 교회 목회자, ‘코로나19 이후 목회 포기할 마음 들었다’ 21%

- 출석 교인 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목회를 포기할 마음이 든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2021년 6월 조사), 5명 중 1명(21%) 정도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인 수별로 살펴보면 출석 교인 20명 이하 초소형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4명 중 1명(23%) 가까이가 목회 포기를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목회 포기 생각한 경험 (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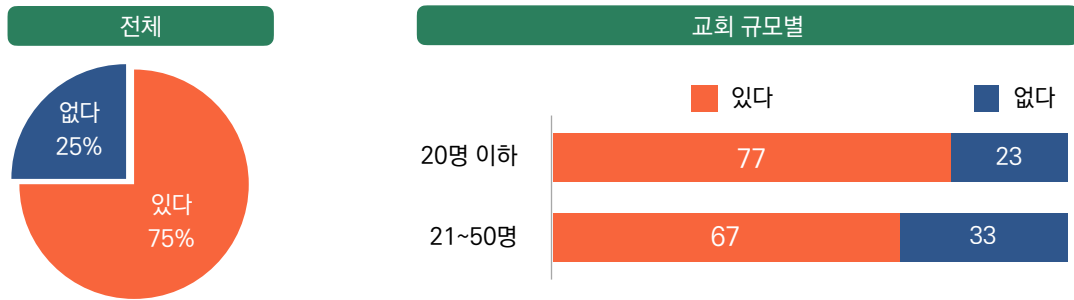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조사주관: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주체:예장합동/예장통합/아시안미션/위비스/햇불회)

## ● 소형 교회 4개 중 3개 ‘존립 위기’ 걱정!

- ‘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는데, 소형 교회 목회자의 75%가 ‘있다’고 응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형 교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를 교인 수별로 살펴보면, 앞에서의 포기 경험과 동일하게 교인수 20명 이하 초소형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한 경험(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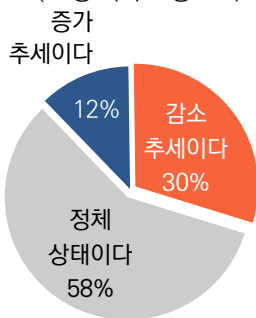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조사주관: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주체:예장합동/예장통합/아시아미션/위비스/햇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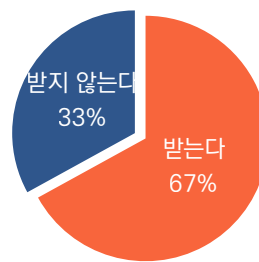
## ● 소형 교회, 교인 ‘감소한다’ 30%, ‘증가한다’ 12%

- 출석 교인 50명 이하 소형 교회 목회자들에게 현재 교인 수 변동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감소 추세이다’ 30%. ‘증가 추세이다’ 12%로 교인수가 감소한다는 교회가 훨씬 많았다.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소형 교회들은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조사 결과 소형 교회 중 현재 재정 지원을 받는 교회가 67%로 나타났다.

[그림] 교인 수 추세  
(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



[그림] 외부 재정 지원 받는지 여부  
(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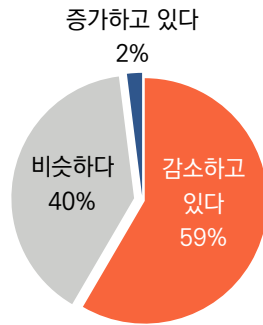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조사주관: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주체:예장합동/예장통합/아시아미션/위비스/햇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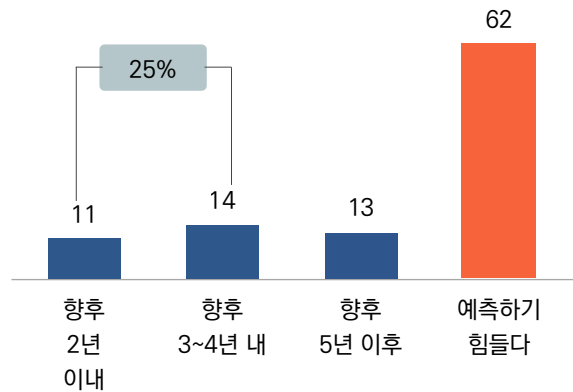
## ● 외부 지원받는 소형 교회, 외부 지원 ‘감소하고 있다’ 59%, ‘증가하고 있다’ 2%

- 외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소형 교회의 경우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감소하고 있다’ 59%, ‘증가하고 있다’ 2%로 감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또 현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언제쯤이면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5명 중 3명의 목회자(62%)가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그림] 외부 재정 지원 증감(지원받는 교회)



[그림] 외부 재정 불필요 예상 시기(지원받는 교회)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 10-6.17, 조사주관: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주체:예장합동/예장통합/아시아미션/위비스/햇불회)

# 202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 50대 연령층, 10명 중 1명 꼴로 이혼자!

‘인구주택총조사’를 일컫는 단어인 Census(센서스)는 고대 로마 시민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5년마다 행해졌던 인구 및 재산의 일제 등록인 센서스(census)에서 비롯됐다(박은태,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1).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 및 경제,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25년에 처음으로 근대적 기법을 갖춘 인구총조사를 시작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해로, 제20차 인구총조사(1925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와 제12차 주택총조사(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전수조사 해당 항목)과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2020년 표본조사 집계 결과가 지난 9월에 공표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현 시점의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시대 상황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202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표본 집계 결과’의 주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혼인 상태’, ‘교육 정도’, ‘사회 활동’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생활비 원천’, ‘활동 제약 및 돌봄’ 등 다섯 가지 부문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겠다. 목회 현장에서 시대를 반영하는 지표를 읽음으로써 세상을 보는 객관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020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 **조사 기준 시점 및 조사 대상**
  - 2020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쳐
- **조사항목**
  - 전수 조사 16개, 표본 조사 55개
  - 표본 조사 항목 중 현장 조사는 45개, 행정 자료 대체는 10개 항목
- **조사방법**
  - 전수조사는 행정 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 표본조사는 현장 조사(방문 면접조사) 실시

##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개요

- **조사 규모**
  - 전체 가구의 약 20%
- **표본추출 방법**
  - 확률비례계통 추출 방식
- **조사 방법**
  - 현장조사(방문 면접조사)
- **현장조사 기간**
  - 인터넷 및 전화 조사 : 2020. 10. 15. ~ 10. 31.(17일간)
  - 준비 조사 : 2020. 10. 31.(1일)
  - 본 조사(방문 면접조사) : 2020. 11. 1. ~ 11. 18.(18일간)
- **현장조사 동원 인력**
  - 총 28,327명(공무원 1,280명, 조사 요원 27,047명)
- **소요 비용** : 949억 원

\* 본 리포트에서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중 '표본조사'의 집계 결과를 소개하며, 총조사 인구는 주민 등록인구, 추계인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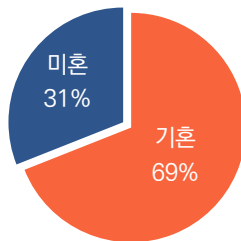
이혼자 비율 지속적 증가!  
2010년 6% → 2020년 8%

- 2020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5,183만 명으로 그 중 15세 이상은 4,396만 명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69%가 기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 기혼자 중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약간씩 줄고 있는 반면, 이혼자 비율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소폭 상승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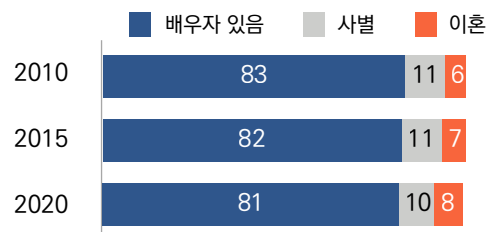
[그림] 총 인구수(2020년 기준)



[그림] 혼인 여부(15세 이상)



[그림] 혼인상태별 인구 비율(기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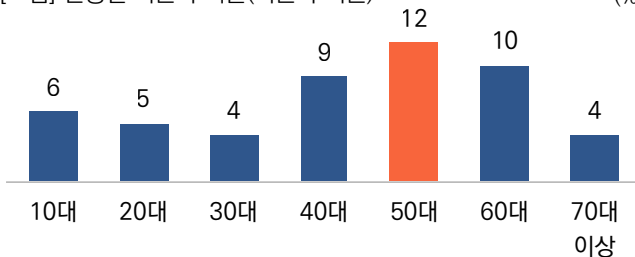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 50대 연령층, 10명 중 1명 꼴로 이혼자!

- 기혼자 기준으로 연령별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연령층에서 이혼자 비율이 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 10%, 40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즉 50대 연령층의 경우 10명 중 1명가량이 이혼자이다.

[그림] 연령별 이혼자 비율(기혼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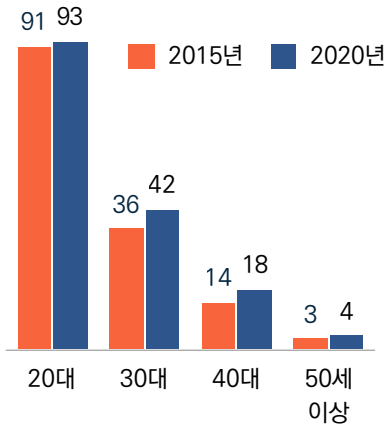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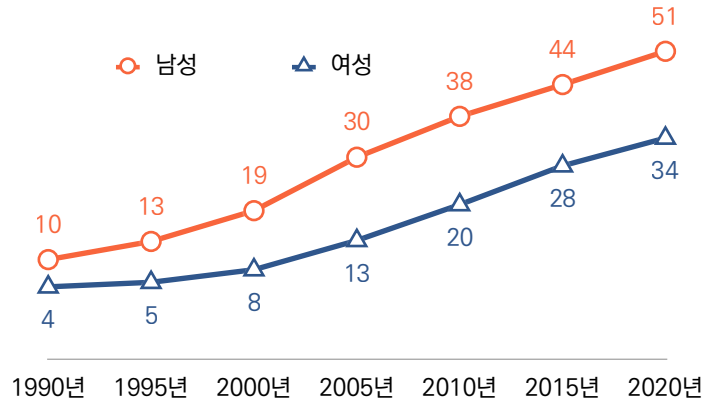
## ● 2020년 30대 남자 미혼 비율 51%

- 전 연령층에서 미혼 인구 비율이 5년 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히 30대의 미혼 비율이 5년 만에 6%p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30대의 미혼 비율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여성의 미혼 비율보다 남성의 미혼 비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난다. 2020년 30대 남자의 미혼 비율은 51%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림] 연령별 미혼인구 비율 (%)



[그림] 30대 연령의 성별 미혼 인구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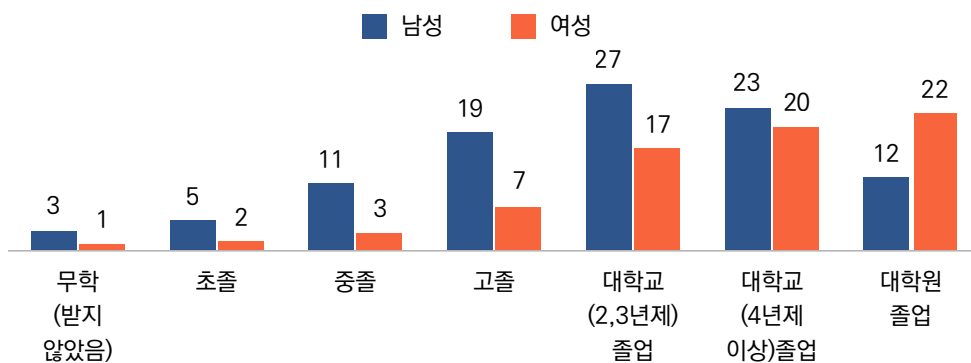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 ● 30대 이상 여성, 학력 높을수록 미혼 비율 높아!

- 30세 이상 남녀의 학력별 미혼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대학(2,3년제) 졸업자에서 미혼 비율이 27%로 가장 높고, 여성은 대학원 졸업자에서 2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 이상 졸업자에서 미혼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 비율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림] 성/학력별 미혼 인구 비율(30세 이상, 2020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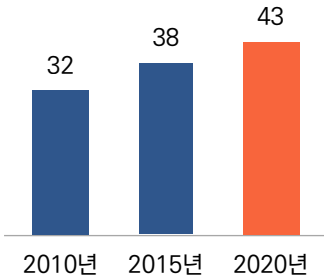
2 [교육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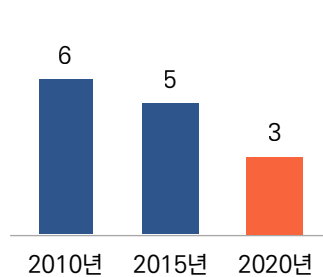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의 43% 대졸 이상!

- 우리나라 국민(30세 이상)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율은 43%로 10년 전보다 11%p 증가했다.
- 반대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인구(30세 이상)의 3%가 무학력자로 조사됐다.

[그림] 대학 이상 졸업인구 비율 (30세 이상) (%)



[그림] 무학(정규교육 받지 않음) 인구 비율 (30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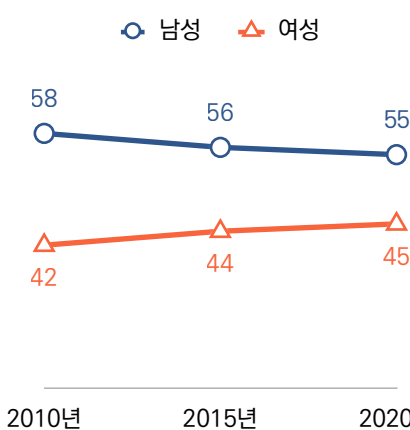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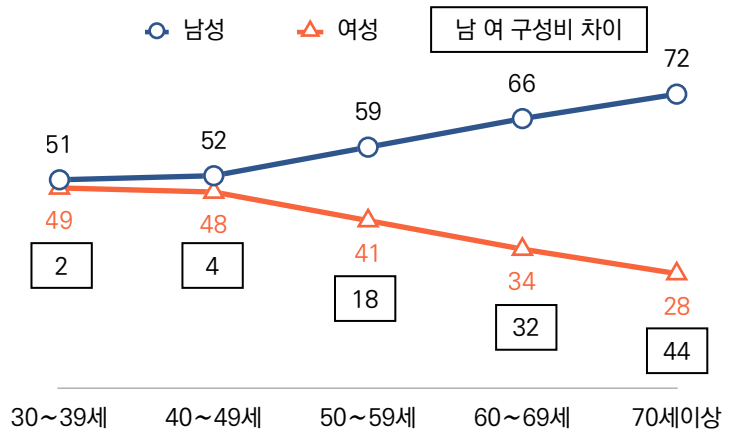
### ● 대졸 이상 학력자의 성비 차이, 해마다 줄어!

-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남녀 간 성별 비율을 보면, 2010년에 남 58, 여 42였던 것이 2015년에는 56:44, 2020년에는 55:45로 계속해서 그 차이가 좁아지고 있다.
- 대졸 이상 학력자의 성비 차이(남-여)를 연령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40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50대 이상 부터는 크게 벌어진다.

[그림] 대학 이상 졸업 인구의 성별 구성비 (30세 이상) (%)



[그림] 대학 이상 졸업 인구의 연령별/성별 구성비(2020년, 30세 이상)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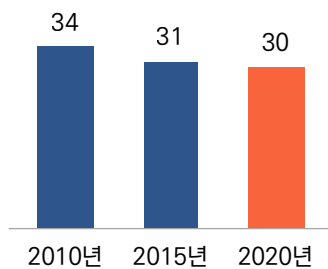
### 3 [사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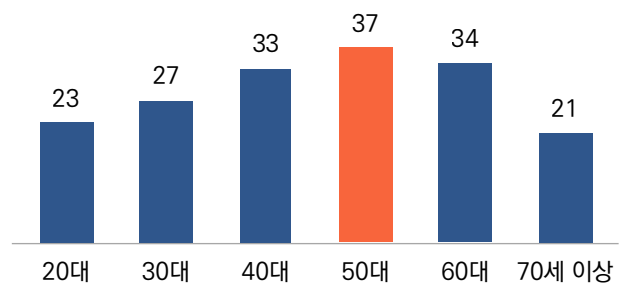
## 50대의 사회 활동 참여율 가장 높아!

- 20세 이상 인구 중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2020년에 30%로, 2010년부터 소폭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40대~60대에서 높으며, 그중 50대의 사회 활동 참여 비율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특히 60대 연령층의 경우도 40대와 맞먹을 정도로 높은 사회 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사회 활동 참여 인구 비율 (20세 이상) (%)



[그림] 연령별 사회 활동 참여 인구 비율 (20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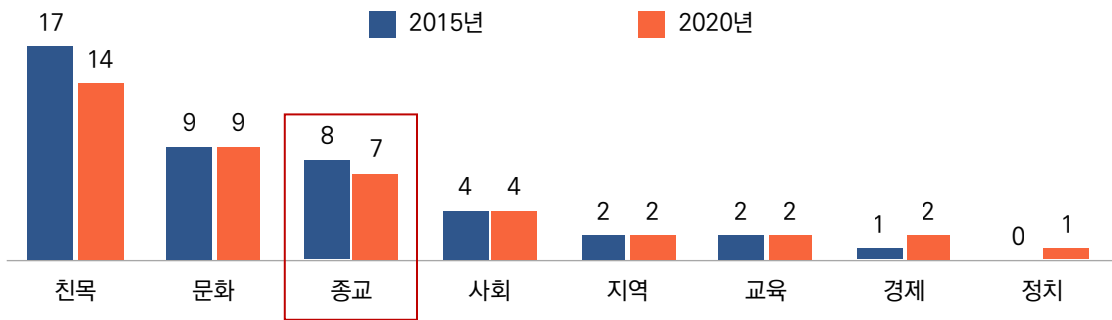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 ● 종교 활동 참여율(선교회, 성가대, 불교 합창단 등 구체적인 활동) 7%!

- 분야별로는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등의 친목 활동이 14%로 가장 높았고, 문화 활동 9%, 종교 활동 7%, 사회 활동 4% 등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종교 활동이란 종교 단체에서 선교회, 성가대, 불교 합창단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함)
- 남성은 친목과 문화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종교활동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 연령별 종교 활동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60대의 종교 활동 비율이 10%로, 가장 활발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 친목/종교 활동의 경우 코로나 영향 등의 요인으로 2015년 대비 참여율이 다소 떨어졌다.

[그림]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인구 비율 (20세 이상, 중복응답) (%)



[그림] 사회활동 참여 인구 비율 (20세 이상, 중복응답, 2020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2021.09.27. (전국민 20% 표본조사, 방문면접조사, 2020.11.01~11.18),  
 \*\* 사회단체는 환경단체, 봉사단체, 인권단체 등, 경제단체는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단체는 축구회, 산악회, 사진동호회 등, 정치단체는 정당 활동 등,  
 종교단체는 **선교회, 성가대, 불교합창단** 등, 지역단체는 아파트 주민 단체 등, 친목단체는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종친회, 전우회 등, 교육단체는 학부모회, 교사단체 등이 해당



## 시사점

소형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20년 총회에 제출된 교세 통계에 따르면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 비중이 2010년에는 23.8%였는데 2019년에는 33.8%로 무려 10.0%p 증가하였다. 초소형 교회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위 규모인 31명~50명 교회의 비중이 10년간 1%p만 증가하고 다른 규모의 교회들은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다(넘버즈 67호 참조).

소형 교회가 증가한 원인은 우선은 개척교회가 늘어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교인 수는 줄지만 개척교회는 계속 생기고 있다. 중대형 교회 부교역자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 둘째는 중형교회의 교인이 줄어서 중형교회가 소형 교회로 내려 앉는 것도 이유이다. 셋째는 위의 요인에 더하여 소형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소형 교회로 남아 있는 것도 소형 교회가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다.

소형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늘 재정적, 규모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소형 교회의 30%는 교인이 줄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외부 재정 지원도 59%는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목회자 4명 가운데 3명은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21%는 목회를 포기할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3~5쪽.)

이런 어려움 앞에서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이종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는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이종직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는 상황적 이유 때문에 이종직을 선택하고 있다. 이종직 수행 목사(담임목사) 가운데 27%가 2020~2021년 사이에 이종직을 시작했다고 한 것을 보면(넘버즈 111호) 코로나19가 얼마나 목회자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다.

소형 교회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가시지를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소형 교회 목회자, 혹은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대형 교회 부교역자들은 교회론을 새로 무장하고 소형 교회 목회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를 지속하기 위한 자비량(이종직) 목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막상 닥쳐서 하려면 헛된 시간만 소비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 목회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굳이 새로 개척된 소형 교회에 갈 새신자는 별로 없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야 한다. 다른 교회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때 그 교회는 존재할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공동체가 강조된 교회, 이주민을 지원하는 교회, 마을 목회에 뛰어드는 교회, 온라인 중심의 교회 등 특정 가치나 기능, 미션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

셋째는 교단적 문제인데, 소형 교회의 대부분인 미자립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주로 목사의 개인적 인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른바 마당발 목사는 지원을 많이 받는데 비해, 소극적인 목사는 그렇지 않는, 지원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을 교단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예장통합 교단의 경우 미자립 교회 지원을 노회와 노회를 매칭시켜서 한다. 각 노회에서 지원할 교회와 지원받을 교회를 선정, 서로 연결시킨다.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받는 교회 목회자 간에 사적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서 지원 양극화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타 교단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이종직 목회자에 대해서는 넘버즈 111호 참고할 것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 치	<a href="#">데일리 오피니언 제469호(2021년 10월 3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a>
	<a href="#">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50호 (2021년 10월 3주)대통령 국정 운영, 차기 정치 지도자 등</a>
사 회  일 반	<a href="#">10명 중 6명 이상 "직장 말고 가상세계로 출근할래요"</a> 연합뉴스_2021.10.18.
	<a href="#">코로나에 배달원 42만명 넘어, 초중고 교사보다 많아졌다</a> 중앙일보_2021.10.20.
	<a href="#">고령 미접종자들 “부작용이 더 겁나”...‘설득’ 숙제 받아든 위드 코로나</a> 조선일보_2021.10.19.
	<a href="#">여론은 모금단체 불신하고, 기부자는 모금단체 신뢰한다</a> 조선일보_2021.10.19.
	<a href="#">활성화 대책도 '백약이 무효'...매년 전통시장 24곳이 사라진다</a> 한국일보_2021.10.20.
	<a href="#">인터넷사이트 등 개인정보 유출, 10건 중 9건은 해킹 탓</a> 연합뉴스_2021.10.17.
	<a href="#">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2030 40% 감축·2050 순배출 제로’</a> 연합뉴스_2021.10.18.
다 음 세 대 / 청 년	<a href="#">"MZ세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산투자...절반은 수익 못 내"</a> 연합뉴스_2021.10.21.
	<a href="#">MZ세대의 新노조문화...SNS로 이슈 제기, 게릴라식 트럭 시위</a> 동아일보_2021.10.18.
	<a href="#">30대 귀농 13% 증가, 창업하듯 첨단영농 몰두</a> 중앙일보_2021.10.16.
종 교/ 기 독 교	<a href="#">작은 교회 목회자들 “이중직 허용” 목소리 높다</a> 국민일보_2021.10.08.
	<a href="#">기독교인 40.5%가 기본소득 찬성...“하나님의 땅에서 얻어진 소득 공유돼야”</a> 국민일보_2021.10.15.

인 구	<a href="#">20년간 인구 줄어든 시군구 151곳...현실로 닥친 '지방소멸' 위기</a> 연합뉴스_2021.10.18.
	<a href="#">“휴지 살 가게 하나 없다” 소멸 닥친 마을 1067곳</a> 한겨레_2021.10.18.
	<a href="#">“인구감소 89곳 年1조 지원”... 전남-경북 16곳씩, 수도권 4곳 포함</a> 동아일보_2021.10.19.
경 제	<a href="#">월급쟁이 10명 중 3명 월 200만원도 못 벌었다</a> 연합뉴스_2021.10.19.
	<a href="#">금리 오르는데... 주담대에 신용까지 끌어 쓴 '다중 채무' 시한폭탄</a> 한국일보_2021.10.20.
	<a href="#">"코로나 이후 부도확률 치솟아...도산 증가 대비해야"</a> 연합뉴스_2021.10.19.
국 제	<a href="#">“영양실조로 분당 11명 목숨 잃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다”</a> 국민일보_2021.10.14.
	<a href="#">美 상위 10% 부자가 전체 주식 89% 소유...‘사상 최대’</a> 서울경제_2021.10.19.

이슈 큐레이션

- [코로나에 휘청인 자영업자, 심리적 후폭풍 밀려오면 무너진다](#)  
 매일경제\_2021.10.19.
- [단군 이래 최대규모 가계부채...충격 없는 브레이크 가능할까](#)  
 경향신문\_2021.10.20.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복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원,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프,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수현,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규,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헌,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